

靜觀齋 李端相의 생애와 사상 (1)*

— 병자호란 경험과 禮論을 중심으로 —

우경섭**

〈차 례〉

1. 머리말
2. 병자호란의 경험과 효종대 관직 생활
3. 현종초 기해예송과 永寧殿 증수 논쟁
4. 맺음말

[국문초록]

그간 정관재 이단상은 17세기 중반 심성론과 예론 위주의 조선 사상계에서 象數學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학풍을 선도한 학자로 평가받아 왔다. 그리고 송시열 등 산림이 주도하던 주자학 일변도의 학풍에서 벗어나, 낙론과 북학으로 이어지는 서인 내 개방적·진보적 학풍을 이끌었던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단상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통설과 다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초반 서울 학인들의 전형적인 입신 경로와 마찬가지로, 이단상은 관료 가문에서 태어나 문장과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인해 집안이 몰락했던 개인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효종대 조정에 머무는 동안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송시열 등 산림들과 뜻을 함께 하였고, 현종 초반 기해예송이 벌어지자 송시열의 體而不正說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또한 『대학』과 『심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주자가 개정한 『대학장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대의 학설을 정리한 『大學集覽』을 편찬했다. 아울러 현종 연간 永寧殿 증수에 반대하며 종묘 제도의 근원적 개혁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나, 집안의 혼사 때 親迎을 고집했던 사실 등은 그의 학문과 사상이 17세기 중반 주자학의 범위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58238-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이단상(李端相), 병자호란(丙子胡亂), 송시열(宋時烈), 영녕전(永寧殿), 상수학(象數學), 대학집람(大學集覽)

1. 머리말

17세기 조선왕조의 정치·사상계를 살피다 보면, 당대의 명성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靜觀齋 李端相(1628~1669)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가 당대 서인 그룹에서 차지했던 비중을 감안하면, 그의 일생에 대한 기초적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의외라고 생각된다. 불과 40세에 요절한 짧은 생애, 그리고 특별한 학맥에 속하지 못하고 별다른 저술을 남기지 못했던 탓인 듯하다.¹⁾

그간 이단상의 삶과 사상에 관해서는 낙론의 종장 金昌協·金昌翁 형제의 스승이라는 도통론적 사실만이 주로 언급되다가, 1990년대 이후에야 구체적인 검토가 시작되었다. 호락논쟁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周易』과 『皇極經世書』에 근거한 이단상의 象數學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北學의 연원으로 낙론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했던 유봉학은 17세기 중반 심성론과 예론 위주의 조선 사상계에서 상수학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학풍을 선도한 학자로서 이단상의 사상사적 위상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호서의 송시열 등과 구별되는 이러한 학풍이 훗날 김창협·김창흠 시기에 이르러 낙론의 人物性同論으로 계승되었고, 그것이 홍대용·박지원의 북학사상의 원류를 이루었다고 계보화하였다.²⁾

1) 이단상의 저술로는 문집 이외에 『大學集覽』·『四禮備要』·『濂洛正音』·『聖賢通紀』 등이 있다고 하나 정식으로 간행되지 못했으며, 그밖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讀書抄語』(古1340-15)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 책 역시 1책(35장)의 소략한 분량에 薛瑄의 『讀書錄』을 초록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촌집』 권20, 『讀書鈔語跋』을 참조할 것.

2)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일지사, 1995), 32~33, 84쪽.

뒤이어 조성산은 서경덕과 신희를 거치며 이단상을 비롯한 서울·경기 학자들 사이에 뿌리내린 북송대 邵雍 상수학의 전통을 폭넓게 살펴본 뒤, 이러한 학풍이 낙론을 대표하는 김창협(1707~1761)의 사상적 토대를 이루었음을 상세히 논증했다. 아울러 상수학의 보편성에 대한 지향이 權道論·調劑論 등 타협적 정치론과 개방적 對淸認識의 기반으로 작용했으며, 이러한 포용성과 다양성이 송시열 계열의 山黨-湖論과 구별되는 서울·경기 지역 漢黨-洛論의 사상적 특징이라 규정했다.³⁾

안동 김문의 가학을 살피는 가운데 이단상에 주목했던 이경구 역시 전통적 명분론을 대변한 송시열이 이단상의 상수학풍을 우려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자연법칙을 중시하고 정치적 대의명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상수학자들의 학풍이 낙론 형성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⁴⁾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17세기 중반 이단상의 사상사적 위상이 정립될 수 있었다. 서울 지역 상수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낙론과 북학으로 이어지는 서인 내 개방적·진보적 학풍의 원류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17~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계의 주류였던 서인계 학자들의 역할을 당파성과 정체론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단상의 삶과 사상은 재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송시열과 대비를 위주로 이단상의 학문적 특징을 검출한 위 연구들의 관점은 호론과 낙론의 대립이라는 18세기적 상황을 전제로 삼아 17세기 중반 사상계의 지형을 파악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결과론적 한계를 지닌다. 이단상의 복잡한 행적과 언설들 가운데 호론과 대립되는 낙론적 요소가 중점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그의 삶 자체에 대한 관심과 탐색은 미진했다고 생각된다.

둘째, 17세기 중반 상수학의 성격과 의의 또한 재고할 여지가 있다.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낙론의 개방적·현실적 사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근

3) 조성산, 『조선 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지식산업사, 2007), 33~36, 51~52, 94~98쪽.

4) 이경구, 『조선후기 安東 金門 연구』(일지사, 2007), 204~205쪽.

원으로서 이단상의 학문에 주목했지만, 상수학을 비롯한 그의 학풍이 과연 송시열 주도의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단상의 현실 인식과 학문적 문제의식 가운데 한당-낙론의 개방적·현실적 세계관의 출현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⁵⁾

어린 시절 병자호란과 명청교체를 겪은 이단상의 경우처럼, 17세기 중반에 태어난 조선 지식인들은 지난 200년간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속에 던져진 세대였다. 한 세대 앞선 송시열 등 선배들이 주자의 가르침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이들에게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삶과 사상을 주화-척화, 한당-산당, 낙론-호론의 구도 속에서 명쾌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치사상적 계보의 판정에 앞서, 일단 이단상이라는 인물의 삶 자체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따라서 이 글은 이단상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자 한다.⁶⁾ 그리고 호란·북벌·예송 등으로 점철된 17세기 중반 조선의 현실 속에서 이단상의 사상, 특히 상수학으로 대표되는 그의 학문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다만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이 글에서는 그의 출생 이후 현종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호란 경험과 효종대 관직 생활, 그리고 현종 초반 예설과 관련된 행적과 논의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그가 서울을 떠나 낙향한 이후의 시기를 다룰 (2)편에서는 그의 대청인식과 화이론, 그리고 상수학을 중심으로 한 그의 학풍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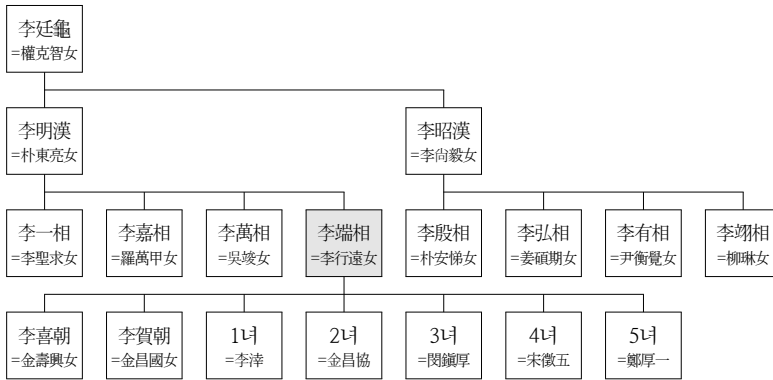
5) 조성산, 위의 책, 122~123, 176~178쪽. 조성산은 명청교체를 氣數의 운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인식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단상의 사상이 지닌 탈중화주의적 성격을 지적했는데, 명청교체를 氣數의 변화로 이해하려는 인식은 송시열을 비롯한 전형적인 중화주의자들의 인식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6) 이 글은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에서 간행 예정인 『국역 정관재집』의 해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집필되었음을 밝히며, 미간행 번역본의 참조를 허락해주신 송혁기 선생님 및 번역에 참여한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병자호란의 경험과 효종대 관직 생활

이단상의 연안 이씨 집안은 조선중기를 대표하는 명문가 중 하나였다. 6대 조 이석형은 세종~성종 연간의 명신으로 佐理功臣에 오르고 延城府院君에 봉해졌으며, 『大學衍義輯略』을 저술한 학자였다. 조부는 조선중기 4대 문장가 중 한 명이자 임란 당시 대명외교를 주도했던 이정구이고, 부친은 병자호란 때 척화신이자 대제학을 지낸 이명한이다. 이명한의 큰 아들 이일상까지 대제학에 오름으로써, 그의 집안은 3대에 걸쳐 대제학을 배출한 가문으로 文名이 높았다. 어머니는 선조의 유언을 받들었던 遺教七臣 중 하나인 錦溪君 박동량의 딸로, 박세채와 이단상은 사촌지간이다.

[표] 이단상의 집안



선대의 가문적 배경뿐 아니라, 이단상 자신이 혼인을 통해 맺은 인맥 또한 대단했다. 소현세자를 심양까지 호종했던 척화신이자 우의정을 지낸 이행원의 딸과 혼인한 이단상은 모두 2남 5녀를 두었다. 큰아들 이희조는 영의정을 지낸 김수흥의 딸과, 둘째 아들 이하조는 김수증의 아들 김창국의 딸과 혼인하는 등 안동 김문 김상헌 후손들과 겹사돈을 맺었다. 다섯 명의 딸도 이조 참의 이정기의 아들 이행, 김수향의 아들 김창협, 민유중의 아들이자 인현왕후의 오빠인 민진후, 우의정을 지낸 정유성의 손자이자 강화학파의 창시자

정제두의 아들 정후일 등과 혼인하는 등, 이단상은 당대 명벌들과 중첩된 연혼 관계를 맺으며 서울 지역 서인 그룹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1628년(인조 6) 부친의 임소인 南陽府 관아에서 출생한 이단상은 조부와 부친의 보살핌 아래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중, 9세가 되던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을 맞았다.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피신한 이단상은 이듬해 1월 강화도 함락 당시 포로가 되어 개성까지 끌려갔다가, 소현세자를 수행하던 고종사촌 洪柱元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둘째 형 이가상은 어머니를 찾아 해마다 청군에 피살되었고, 할머니와 어머니 역시 전쟁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전쟁이 끝나자 인조와 대신들은 패전의 책임을 척화론자들에게 돌렸고, 큰 형 이일상은 척화를 주장해 나라를 망치고 남한산성에서 도주하여 임금을 저버렸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⁷⁾ 뒤이어 1642년(인조 20) 승려 獨步를 파견하여 명과 밀통한 사실이 발각된 이른바 2차 瀋獄이 일어나자, 아버지 이명환은 척화 5신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5개월간 심양에 구금되었다.

병자호란에 얽힌 이같은 가족사는 당연히 이단상의 정치·사상적 행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호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남기지 않았지만, 남한산성 함락의 원인을 기미책(주화론)에 돌린 시에서 볼 수 있듯이,⁸⁾ 기본적으로 척화론의 입장에 서 있었다. 호란 이후 유일한 師表로서 김상헌을 평생토록 존모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만하다.⁹⁾ 인조 후반 친청적 분위기가 조정에 팽배하고 서울에 세거하던 대부분 관료 가문들이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에 비하여, 이단상의 집안은 김상헌의 안동 김문과 더불어 척화론을 대표하는 가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한편 1645년 창궐한 전염병으로 인해 아버지 이명환과 셋째 형 이만상마저 세상을 떠났다.¹⁰⁾ 병자호란 이후 10년 만에 온 가족이 죽고 큰형과 자신

7)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2월 19일(기축), 20일(경인).

8) 『정관제집』 권3, 『延陽府院君李相公-時白-挽』, “誰教廊廟羈縻策, 未展金湯戰守機, 種蠡百年遺恥在, 幾回中夜淚空揮.”

9) 『정관제집』 권1, 『東湖夜雪』, “昨夜江湖雪, 千塵世界白, 惟有石室松, 蒼蒼依舊色.”

10) 『지촌집』 권23, 『叔父進士府君墓誌』; 『동리집』 권14, 『先府君行狀』.

만 남겨진 것이다. 이때부터 이단상은 큰형 이일상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학업에 힘쓴 결과, 1648년(인조 26) 진사시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이듬해 1649년(인조 27) 정시 병과에 합격했다.

문과에 급제하기까지 이단상의 수학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 호란 이전 어린 시절에는 나랏일로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 박씨와 교관 閔後鸞이라는 인물에게 기초적인 경서와 역사를 배웠다는 사실이 전해질 뿐이다. 호란 후에는 척화의 뗏가로 집안의 화란이 거듭되면서 뚜렷한 사승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주로 아버지와 큰형에게 학문을 배웠으리라 짐작된다.

이단상이 어린 시절 부형으로부터 전해 받은 학문은 도학보다 문장이었을 터인데, 이정구의 손자이자 이명한의 아들답게 문장에 관한 천부적 재능을 지녔던 듯하다. 또한 그 자신 역시 문장이야말로 가문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의 원천임을 확신했다. 한 해에 3번 장원급제를 차지했던 6대조 이석형부터 송나라 蘇軾 3부자에 비견되던 이정구·이명한·이소환,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8명의 종형제에 이르기까지 ‘건국 이래 우리 집안만큼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경우는 없었다’고 자부했다.¹¹⁾

젊은 시절의 글을 통해 이단상의 풍모를 상상해 보면 천부적인 문장과 더불어 학문적 조예를 겸비하고, 술과 시를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에 직설적인 언행을 삼가지 않던 성격이었던 듯하다.¹²⁾ 그의 문장에 대한 사촌동생 박세채의 평에 따르면, 화려한 수사와 규정된 법도에 얽매이지 않았고 한번 붓을 잡으면 막힘없이 써내려 가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또한 동년배들이 따를 수 없는 박식하고 주밀한 문장에 더하여 세상 이치(名理)에 대한 고민까지 갖추었음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장점이라 평가했다.¹³⁾

11) 『정관재집』 권14, 「祭正字堂兄文」 “國朝來, 以文章鳴世聲名洋溢乎東方者, 莫我李若. 蓋吾六代祖樛軒先生, 以一年三魁, 受英廟不世之知, 先王父文忠公府君, 以三朝大老, 冠冕一時, 而天下誦其文, 先府君與先季父府君, 又聯步騷壇, 各建旗鼓, 湖堂儼幕, 迭唱填篋, 鏗錫炳耀, 盪人耳目, 而先府君則又踵先王父府君, 繼主文盟, 世以此比之於三蘇, 豈不亦彬彬盛矣哉? 逮至吾昆季八人, 兩家伯仲, 先後通籍, 而諸兄亦多以藝鳴于場屋者, 雖以弟之不肖, 亦隨伯仲之後, 忝列朝行, 人或以此妄擬於八荀.”

12) 『정관재집』 권14, 「追寄關西李按使子修一正英一序」 “記昔不佞與子修氏同鎖禁直也, 俱不能持此戒, 謔浪於赤墀青瑣, 樂放縱而惡拘檢者極矣. 伊時禁中人, 至有戲爲之標榜而並稱者.”

이처럼 문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를 거쳐 관료로 입신했지만, 그가 젊은 시절부터 도학에 관심을 지녔음은 인조 말년 무렵에 쓴 다음 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평생토록 스스로 간략함을 지키려 하니,
아침에 바르게 보고 저녁에 죽고자 하네.
성인들이 남긴 말씀의 실마리를 더듬으며,
그 연원을 탐구하여 날로 나아가려 하네.¹⁴⁾

위의 시구 중 ‘貞觀’은 본래 『주역』에 나오는 말로, ‘天地의 道는 항상 올 바르게(貞) 드러나기(觀) 마련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¹⁵⁾ 이는 세상을 관통하는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법칙(道)의 존재를 확신하며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리학자의 전형적 태도로, 이단상의 도학자적 풍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가 기필하던 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었을까? 그 대답은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물며 나는 지금 한 귀퉁이에 태어나
아득한 至治를 보기는 어려울 듯하니,
밝고 밝은 天理는 칠혹같이 캄캄하고
오랑캐가 변방에서 칼자루를 거꾸로 잡았구나.
임금을 받들어 더러움을 씻어낼 재주가 없다면
그저 자취 감추고 운명에 순응할 뿐,
禮樂과 帝霸를 중횡으로 논하며

13) 『정관재집』 卷首, 『靜觀齋集敍』(朴世采) “公於爲文, 多識博發, 質清而用周, 殆非一時諸公所及, 獨性不喜規規作者矩度, 比反儒學, 尤主於演義理達事情, 操筆立書, 終不點檢修潤, 譬如川源之水, 無一停滯, 而池沼溝澮, 亦各賴其用. 於詩章, 必且屏去藻繪, 表著名理, 可見晚境所得者深也.”

14) 『정관재집』 권1, 『次濟卿兄嗚呼吟』 “平生自擬守孔約, 朝欲貞觀而夕死, 方將群聖緒餘論, 探蹟淵源期日就.”

15) 『周易』 繫辭傳下 “吉凶者, 貞勝者也, 天地之道, 貞觀者也, 日月之照, 貞明者也, 天下之動, 貞夫一者也. : 貞, 正也, 常也. …… 程子曰, 天地之道, 常垂象以示人, 故曰貞觀.”

風花雪月の 경치 속에 한가로이 노니리라.¹⁶⁾

세상에 충만한 도가 정작 현실에서는 발현되지 못함을 한탄하며, 이단상은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해 가던 당시 정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관직에 나아가 오랑캐를 소탕할 수 없다면 산림처사의 삶을 선택해 학문에 전념할 뿐이라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다소 체념한 듯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는 실제로 효종의 조정에 나갔다가 여의치 않자 양주 東岡으로 물러나 학문에 전념하게 되는 그의 미래를 예시한 말이었다.

1649년 5월 왕위에 오른 효종은 즉위 직후 山林을 등용하여 청에 대한 복수를 추진했다. 조선전기 국정을 주도한 세력이 주로 서울의 공신과 관료였다면, 효종 초반 호서 산림의 등장은 조선후기 정치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집과 송시열 등 산림의 주자학적 정치론과 김육을 중심으로 한 在京官僚들의 현실적 태도가 충돌을 빚으며, 이른바 山黨과 漢黨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재경관료를 대표하는 가문 출신인 이단상이 효종 초반 출사 직후부터 산당과 가까운 관계였음이 특이하다. 물론 선대부터 쌓아 온 서울 지역 명벌들 간 世交 역시 두터웠다. 일가의 먼 친척이자 반정공신 이귀의 아들인 이시백·이시방 형제나, 신희의 손자이자 신익전의 아들 신정과는 형제같은 사이였다고 하며, 후술할 바와 같이 현종 연간 절교하게 된 김좌명 및 서필원 등 한당의 주요 인물들과도 교분이 깊었다. 그러나 이단상이 조정에서 뜻과 행동을 함께 한 사람들은 대체로 산당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사실 이단상의 교유 관계는 그리 넓지 않았다. 호란 때 겪은 풍파로 인해 정식으로 스승을 모시고 벗을 사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의 주변 인물들은 대략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가 직접 배우지 않았지만 스승처럼 여기던 사람들로, 김상헌과 이경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인조 말년 친청파가 득세하던 조정에서 척화론의 계승을 주장하고, 효종의 북벌에

16) 『정관재집』 권1, 「次濟卿兄嗚呼吟」, “況我今生一隅陬, 邈矣至治其難觀, 昭昭天理黑如漆, 夷羯倒執潢池柄. 如無捧日滌穢才, 好須斂跡安吾命, 縱橫禮樂帝伯論, 徜徉風花雪月景.”

적극 공감하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효종 초반 산림의 영수였던 김집에 대해서도, 그의 문하에서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로 각별한 존모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¹⁷⁾

둘째는 대형 이단상과 비슷한 연배이자 당시 조정의 중진이었던 홍명하와 조복양, 그리고 산림의 핵심인 송준길과 송시열이었다. 이들은 30세를 전후한 시기에 병자호란을 경험한 세대로, 호란 후유증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접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었다. 이단상은 선배라 할 수 있는 이들을 통해 조정 내부의 긴요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또한 학문과 현실 정치의 방향성에 관하여 긴밀히 상의했다. 또한 평생의知己이자 사돈인 이정기 역시 이단상이 크게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셋째는 동년배인 민정중·김수항·박세채 등이었다. 10세 무렵 전쟁을 겪었던 이들은 청에 대한 적개심을 앞 세대와 공유했으나, 복수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찍 관계를 끊었던 윤증 및 종묘 개수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남구만 등도 비슷한 또래였는데, 이 세대의 사상적 차이가 훗날 노론과 소론의 분립으로 귀결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효종 초반 조정에 나이간 이단상은 승문원·예문관·춘추관·홍문관 등 국가의 문헌을 관장하는 館閣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정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이조·병조의 낭관, 언론의 중책을 맡은 사헌부·사간원, 국왕과 세자를 측근에서 보필하는 승정원과 시강원 등 청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고위 관료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이 같은 관력은 당시 이단상이 서인 내부에서 중망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정구의 손자이자 이명환의 아들이라는 가문적 배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정에 있는 동안 늘 知製教를 겸직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자신이 갖추었던 뛰어난 문장 덕분이기도 하였다. 또한 효종대 내내 경연과 서연에 출입했던 사실은 문장 뿐 아니라 학문에 대해서도 세간의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17) 『정관제집』 권2, 『挽愼獨齋先生』, “新秋銜命從臣班, 爲弔靈筵再拜還, 不復摳衣承嚔咳, 猶疑入室侍容顏, 龍亡大澤吾安放, 天喪斯文道益艱, 遙想平生門下士, 一時相嚮哭青山.”

보여준다.

그렇다고 이단상의 관직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효종의 시대는 청의 강압이라는 외부적 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난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는 소현세자 죽음 이후 효종의 세자 책봉 과정에서 야기된 정통성의 문제였고, 둘째는 군사 훈련과 군비 확충에 대한 신료들의 비판과 불신이었다. 따라서 효종은 왕실 및 戎政과 관련된 간언을 좀처럼 용납하지 못하고 강박적 반응을 보였다.

이단상은 기본적으로 청에 대한 복수를 추진하던 효종의 입장을 지지했다. 1650년(효종 1) 감자점이 청에 복벌 동향을 밀고하자, 청은 국경에 군사를 집결시키고 6명의 사신을 잇달아 파견하여 조선 조정을 압박했다. 이때 이단상은 史官의 신분으로 효종을 수행하여 남별궁에 나아가 청사를 만난 뒤, 『분함을 쏟아내며(寫憤)』라는 시를 남겼다.

은 세상이 풍진으로 캄캄하더니 중원에 전쟁이 멈췄구나.
 하늘은 어찌 지금까지 취해 있는가, 피비린내 10년인데 ……
 劊肝의 계책이 어찌 없으리오, 刑笞의 형벌을 근심할 뿐이로다.
 더러운 세상에 나는 끝이 났으니, 돌아갈 꿈속 고향 산이 푸르구나. ……
 칼이 춤추는 것이 중원의 기색이요, 황하가 맑아짐은 상제의 권한이로다.
 천추에 원통한 지사의 눈물이 붓끝을 적시며 똑똑 흐르니 ……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나, 시대가 위태하니 權道만 헤아리누나.
 칼을 울릴 의지가 없지 않으나, 외진 나라 뒤웅박 신세를 어이하랴.¹⁸⁾

청의 강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조정은 영의정 이경석 등을 백마산성에 구금했고, 복벌을 위해 출사했던 송시열 등 산림들도 모두 조정을 떠났다. 관료의 처지에서 이러한 상황을 목도한 이단상은 분노와 무기력한 심

18) 『정관재집』 권1, 『寫憤』 “四海風塵暗, 中原戰伐停, 天何今日醉, 血已十年腥. …… 豈乏劊肝策, 還憂刑足刑, 風塵吾已矣, 歸夢故山青. …… 劍動中原色, 河清上帝權, 千秋志士淚, 沾灑筆頭偏. …… 主辱臣宜死, 時危算出權, 非無鳴劍志, 瓠繫奈邦偏.”

경을 위와 같이 토론했다. 오랑캐가 중원을 횡행해도 그냥 놔두는 ‘술 취한 하늘’과, 충심을 다해 계책(劓肝策)을 올려보야 공연한 화(刑足刑)만 초래할 뿐인 답답한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강성한 청의 위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힘없는 나라의 신하가 지녔던 울분이었다.

그러나 이단상은 친청파가 득세하던 인조 말년과 비교하여, 효종 즉위 이후 김상헌·김집 그리고 송준길·송시열·홍명하 등이 조정을 주도하여 일세의 至治를 이루고 천하의 大義를 밝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이 북벌의 대업을 도모하던 효종의 성세를 만났음을 다행이라 여기며, 19) ‘물러나 밥 먹을 때가 아니면 늘 임금 곁에 있었다’고 한 행장의 서술처럼, 효종의 측근에서 臥薪嘗膽의 뜻을 보필했다.²⁰⁾

그러나 효종과의 관계가 늘 좋지만은 않았다. 이단상은 언관으로 재직하며 宮家와 中官의 작폐를 지적하고 형식적인 閱武를 중지할 것을 청하는 등 효종이 민감하게 여기던 사안들에 대하여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김홍욱이 강빈옥사를 거론하다 장살된 지 불과 1년 만에 경연에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언로의 개방을 청하는 상소를 거듭 올렸던 일은 효종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홍명하는 ‘오늘 일은 이단상이 아니었다면 필시 헤아릴 수 없는 화가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탄식할 정도였다.²¹⁾ 또한 효종이 총애하던 인평대군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예법을 따지며 親祭하지 말 것을 청한 일로 인해 ‘감히 들을 수 없는’ 엄한 하교를 받기도 하였다.²²⁾

19) 『정관재집』 권3, 『讀明史有感』 “手閱青編味轉深。百年興廢卷中尋。誰懷管葛擎天志，運入金元掩淚吟。歷歷可知前代跡，時時得見古人心。重恢大業吾王事，自幸躬逢聖世今。”； 권14, 『祭沂川洪相國文』 “國家自丙丁以後，士論銷亡，至於長陵之季而極矣。惟我孝宗大王，以天縱之聖，撫運承基，寤寐英豪，遊心三代。於是清陰愼齋二先生，首以大老進，而尤菴同春諸賢，并有彙征之吉，明良相遇，千載所罕，方將興至治於一世，明大義於天下。……粵自孝廟之初，至于今二十年間，內而爲士林之冠冕，上贊王猷，下揚清議。密勿左右，以成其治，如元祐之馬呂，穆廟之思相者，非我公而誰也。”

20) 『정관재집』 권15, 『行狀』 “至是，上復登儒賢，日三晉接。公遂與之協心啓沃，一以成就君德爲己任，蓋非退食之暇，未嘗不在於上前，則誠所謂千載之會，而抑公仕優之志，殆亦源於是矣。”； 『정관재집』 속집 권10, 『仁川鶴山書院賜額祭文 - 判決事李宜顯製』 “寧王在有，通啓昌辰，論思獻納，協襄惟寅。十載周旋，庶贊臥薪，世故遭廻，志倦簪紳。”

21) 『효종실록』 권15, 효종 6년 8월 9일(경신)； 권16, 효종 7년 윤5월 11일(무오).

22) 『정관재집』 권4, 『請停親臨閱武疏 - 壬辰』, 『應旨論時事疏 - 丙申』； 권7, 『處置乖當引避啓 - 丙申』, 『請推青平尉沈益顯啓』, 『請令麟坪大君夫人移寓啓』, 『請還收大君家親祭之命嚴旨後引避啓』； 연보 권1, 崇禎二十九年丙申九月 “時上累下嚴旨，至有不敢聞者。”

한편 이단상은 효종 연간 관직에 있는 동안 호서 산림들과 의견을 같이 하며 서인의 도학적 정통성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1658년(효종 9) 전라도 함평의 정개청 서원, 즉 紫山書院에 관한 상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16년(광해군 8) 복인에 의해 건립된 자산서원은 산림의 영수 김장생이 인조반정 직후 출사하자마자 문제삼았던 곳이었다.²³⁾ 당시 김장생은 퇴계학파의 일원적 도통의식과 비교하여 서인 학통의 불비함을 우려하며, 16세기 서인의 정치적·사상적 계보를 정리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서인의 구심점으로서 성혼·이이와 더불어 박순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며, 기축옥사 당시 서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따라서 박순 문하에서 성장한 정개청이 스승을 저버리고 정여립에 동조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정개청을 향사한 자산서원의 훼손을 인조에게 건의했던 것이다.²⁴⁾

김장생의 제자인 송준길과 송시열 역시 서인 도통론 정립에 각별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다. 송준길이 1657년(효종 8) 다시 조정에 나오며 요구한 첫 번째 과제가 자산서원 훼손이었던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정개청이 박순을 배신한 잘못과 더불어 ‘排節義論’을 거론하며 자산서원 훼손을 효종에게 청했다. 그런데 남인 윤선도가 이를 반박하는 상소 가운데 ‘김장생의 견해가 大公至正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黨同伐異에 불과하다’며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²⁵⁾

이때 김장생 문하의 호서 산림과 별다른 관계가 없던 이단상이 나서서 윤선도의 주장을 悖妄之論이라 비난한 상소를 올린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²⁶⁾

23) 1616년(광해군 8) 세워진 자산서원은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건립과 훼손이 반복되었는데, 그 시대적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허상복, 「자산서원, 훼손과 복설의 상징정치」, 『인문과학연구』 21,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우경섭, 「17세기 沃川 三溪書院과 斯文是非」, 『역사와 담론』 82, 호서사학회, 2017.

24) 『사계유고』 권1, 「辭執義仍陳十三事疏－甲子六月」, “且今世書院, 如名賢中人所矜式者, 後學之崇奉宜矣. 如鄭介清郭詩之類, 憑藉勢力, 亦且濫廁於其間, 故是非不明, 弊端不貲, 今宜一從公論, 有所財處也.”

25) 『효종실록』 권19, 효종 8년 9월 25일(갑자): 『고산유고』 권3, 「論政院壅蔽疏(再疏)」, “金長生所聞之言, 實出於大公至正之人歟, 或出於黨同伐異之人歟, 此又不可知也.”

26) 『정관재집』 권4, 「論鄭介清書院事疏－戊戌」, “又以大公至正黨同伐異等說, 爲其結語, 以爲護侮先正之計, 眞可謂欲巧反拙, 而自不覺不成說話也. …… 善道疏中多少說話, 固不欲卞其是非, 而此則事關儒林, 不可不明卞而痛斥. 臣於此事, 既有可據聞見, 而且於上年詳知宋浚吉所達之顛末, 義難含嘿, 敢

아마 서인 학통의 제1세대인 박순·성혼·이이의 뒤를 이어, 제2세대의 영수였던 이정구의 손자로서 사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²⁷⁾ 그러자 윤선도가 부친 이명한이 이이첨에게 아부하여 지었다는 시를 거론하며 정개청의 무고함을 주장하자, 시강관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 줄 것을 청했다.²⁸⁾

이 일을 계기로 이단상은 서인 안에서도 강경파로 자리잡게 된 듯하다. 대다수 재경관료들이 산림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당파적 입장을 지녔던 것을 감안하면, 이단상은 특히 북인에 대해 엄정한 시비분별을 강조했다. 그 즈음 경연에 입시한 이단상이 정인홍을 두둔하던 권시를 신랄하게 공격하여 인천으로 낙향하게 만든 일도 있었는데,²⁹⁾ 이때 시작된 윤선도 및 권시와의 악연은 현종 초반 기해예송으로 이어졌다.

3. 현종초 기해예송과 永寧殿 증수 논쟁

1659년 5월 효종이 승하하자 이단상은 조정을 떠났다. 이전 겨울 전라도 암행어사로 나갔던 얻은 병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더이상 세상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 오직 爲己之學에 뜻을 두었기 때문’이었다.³⁰⁾ 그리고 1669년(현종 10) 세상을 떠나기까지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병 치료

略陳其一二，伏願聖明俯賜財省，亟斥悖妄之論，毋令中外疑惑焉。”

27) 17세기 초반 서인 내에서 이정구의 정치적·학문적 위상에 관해서는 오세현, 『文章, 조선을 경륜하다』(나눔, 2018), 94~110쪽 참조.

28) 『고산유고』 권3, 『國是疏』 “介清之貽書，若在汝立兒謀敗露之後，則其罪固不可測矣，實在汝立兒謀未露之前，則有何罪也？…… 端相之父明漢贈之以詩曰，文星今與德星俱，千里湖山興不孤，想得關西新樂譜，一時爭唱鳳將雛，德星文星鳳將雛，蓋指爾瞻父子而言也。…… 人或以此詩罪明漢，而臣則以爲不當然也，蓋當時在朝之臣，皆不能與爾瞻相絕，豈獨以此罪明漢乎？”；『정관재집』 권4, 『辭兼輔德疏』

29) 『승정원일기』 효종 9년 3월 25일(임술)；『지촌집』 권30, 『尤庵先生語錄』 “論權公認事，先生曰，此人其心善良，別無邪心，只是中無所主，故其疏亦如許。吾曾往清風，先尊丈與余同舟，自寒碧下，至于下流，半日所言，皆是此人事。先丈以爲曾與同入筵席，觀其所爲與所言，無一可觀云。余問，曾聞此人於筵中，稱頌鄭仁弘事，先人嘗面斥云，然否。答曰，其時先丈極言大斥，故彼不得在朝，遂出仁川，此後孝廟時，更不入朝矣。”

30) 『정관재집』 권15, 『行狀』 “孝宗昇遐，累拜舍人宗簿寺正，公既得羸疾，又見時事漸變，自度不能與世浮沈，遂杜門却掃，絕意進取，而慨然有志於爲己之學。”

를 위해 1661년(현종 2)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청풍부사를 지내고, 어머니 봉양을 이유로 1664년(현종 5)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부사로 재직했던 것이 현종 연간 실제 관직에 있었던 전부였다.

현종은 즉위 직후부터 동궁 시절 스승인 이단상을 여러 차례 조정에 불렀으나, 이단상은 병을 이유로 출사를 사양했다. 그러나 상소를 통해 조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송준길·송시열 등 兩宋과 공고한 관계를 맺고 서인의 핵심 이론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1660년(현종 1) 3월 효종의 小祥을 앞두고 송시열의 體而不正說을 비판한 허목의 상소를 계기로 예송이 본격화되었다. 이때 송시열과 함께 기년복을 의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송준길은 허목의 주장을 반박하는 상소를 준비하며 이단상에게 의견을 구했고, 이단상은 『의례』 주석들을 검토하여 송준길의 주장이 정당함을 확인해 주었다.³¹⁾ 이때 흥미로운 점은 산림의 증진이자 55세의 송준길이 30대 초반에 불과한 이단상에게 예법을 질의하고, 이단상이 이론적 타당성 뿐 아니라 세부 문구에 이르기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이단상의 학문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뒤이어 윤선도가 송시열의 예설을 가리켜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라 비난한 상소를 올리면서, 예송은 典禮 논쟁이 아닌 忠逆 시비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같은 서인 중 재경관료의 대표적인 원두포마저 허목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고, 산림의 일원이자 송시열의 사돈인 권시조차 윤선도를 ‘할 말을 하는 선비(敢言之士)’라 두둔했다.³²⁾

불충의 혐의를 뒤집어 쓴 이상, 송시열은 논쟁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기 어

31) 『동춘당집』 권4, 「承命論許穆喪服疏筭一庚子三月」; 「정관재집」 권8, 「答宋同春一庚子」 “許掌憲之此疏, 非偶然猝發於今日也. 當初所定之制, 若果大違於禮經, 則惟當改之之不暇, 固不可有所持難, 稽之古禮, 參以國典, 若無明白誤定之事, 則亦可因此而遽以爲失也. 竊觀許意, 則全以父爲長子下疏中所謂第一子死, 則取適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之語, 爲大段可據, 而以傳下疏中體而不正, 立庶子爲後之庶子爲妾子也. 今此筭中所陳, 段段攻破, 洞快無餘, 雖以繼統爲重, 以兄繼弟, 以叔繼姪者, 豈可皆服三年之語, 亦甚正當. 若於此三節, 皆未見許議之爲是, 則當初所定之無失, 從可知矣. 筭中辭意, 平穩詳盡, 固無所可議, 而但於其中, 臣亦不敢別生他論八字, 似若全歸之於大臣者然. 若以臣意亦然, 故與之相議, 定以冝服之意, 改爲措語則如何?”

32) 『현종개수실록』 권3, 현종 원년 4월 18일(임인), 24일(무신).

려운 처지였다. 이때 서인 소장층 가운데 송시열의 정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던 사람이 이단상이었다. 그는 이제 예송이 天道의 消長과 사림의 흥배에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자 국가적 차원의 시비가 될 것임을 예견했다.³³⁾ 그리고 윤선도·원두표·권시의 배후로 윤희를 지목하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 절교한 뒤,³⁴⁾ 남인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을 것을 송준길에게 충고했다.

대감이 그(권시)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에, 가엽게 여기고 두둔하려는 뜻이 없지 않습니다. 대감의 입장에서 그리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상소 내용이 결코 심상한 데 비할 바 아니니, 제 생각으로는 옛 친구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희의 사람됨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를 군자라 확신하지 않았지만 취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진 뒤 비로소 그가 이 지경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 그의 독한 마음이 윤선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앞장서서 저들의 논의를 이끌고 부추긴 죄를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부리가 석 자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³⁵⁾

그리고 예송의 책임을 자책하여 물러난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의 낙향이 ‘지나친 신념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동(過信輕動)’이라 충고하며 조정에 머물 것을 권유했다. 또한 예송이 남인들의 근거없는 비난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 수습하지 못한다면 장차 감당할 수 없는 문젯거리가 될 것임을

33) 『정관재집』 권8, 『上宋同春』② “權疏忽上, 竟不得掩其心跡, 世間萬事, 無所不有, 痛嘆奈何? 伏想大監亦必悔平日之曾未透破耳. …… 竊恐尹權此事, 終必爲國家士林它日無窮之憂, 似非一時華宗浪戰之比, 豈意新化清明之初, 乃見如許景色耶? 道之消長, 天也非人, 奈何奈何?”

34) 『백호전서』 권1, 『答李幼能』 “事之首末, 不過如此, 不料起高明之疑乃至於此也. 高明之疑, 終始如此, 則鑑不敢復通記府之間, 以洩於門下悠悠之談, 鑑雖罷劣, 亦不敢嘵嘵自辨以愧執事矣.”

35) 『정관재집』 권8, 『答宋同春』③ “太監與彼素相親厚, 故猶不免有些顧憐欲護底意. 在大監之道, 雖不害爲如此, 而彼之疏語, 亦非尋常之比, 則侍生妄意, 竊以爲不失親故之訓, 恐於此處用不得也, 如何如何? 尹鑑爲人, 則侍生於前日, 雖未能必信其爲君子, 而猶以爲不無可取之處. 今事之後, 始知其人之至此也. …… 雖不可斷以爲其心之慘一如海尹, 而立幟彼論鼓動德憑之罪, 渠烏得免乎? 此則渠雖有喙三尺, 亦必不能自解耳.”

경고했다.³⁶⁾

송시열의 출처를 놓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했던 사람은 아마 이단상이 유일할 듯하다. 얼마 뒤의 일이지만, 이단상은 송시열과 대면한 자리에서 그의 성품이 너무 준엄함을 충고하며, 지나치게 온화한 송준길의 성격과 반반씩 나눠 가지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³⁷⁾ 이처럼 진솔함을 넘어 당돌한 태도 때문이었을까, 송시열은 예송 직후부터 20세 연하의 이단상을 제자가 아닌 친구로 대하며, 화려한 겉치레를 버리고 영월히 변치 않을 도의으로써 교유하기를 기약했다. 그리고 그가 조정에 나와 조부와 부친의 뒤를 이어 서인의 중추로 활약할 것을 기대했다.³⁸⁾

그 이전에도 이단상과 송시열은 조정에서 대면한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교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에는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듯, 이단상이 양송의 출사를 비난하며 그들의 실패를 장담한다는 말이 퍼지기도 하였다.³⁹⁾ 진위 여부를 떠나, 소문의 내용은 당시 관료와 산림 사이 자못 적대적이던 분위기와 더불어 재경관료의 일원으로서 이단상의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 살펴볼 공의·사의 논쟁 때에도 이단상은 비슷한 논란에 휘말렸다. 그가 송시열을 배신하고 서필원을 편들었다는 소문이었는데,⁴⁰⁾ 이러한 구설수는 관료적 출신 배경 위에서 산림의 삶을 지향했던 이단상이 피할

36) 『정관재집』 권9, 「上宋尤齋一時烈一庚子」, “向者決退之舉, 實出於思量爛熟, 固非衆人之所敢仰讓, 而侍生妄意, 終不能無疑於過信而輕動. ……一向撕捥, 則竊恐此事初或起於白地, 而因此輾轉醞釀不已, 畢竟收殺之難, 有不可形言者, 未知台監亦果有意於此否? 台監進退, 繫道消長, 必有素講, 豈待人言, 而戀德之深, 敢畢微憫, 惟台監察其誠而恕其妄焉.”

37) 『정관재집』 속집 권9, 「遺事續一子喜朝」, “府君又奉規曰, 長者太嚴峻, 同春太溫和, 嚴峻與溫和, 固皆美德, 然過則爲病, 吾願兩丈交有所濟則好也.”

38) 『송자대전』 권64, 「答李幼能一辛丑至月二十六日」, “茲復竊有所請者, 鄙劣承幸雖晚, 託契之心, 則實不淺矣. 常願絕去華飾, 只以道義侑羣, 相期於千載之下矣. 今茲來札, 執辭過謙, 使人有慙縮而不敢當者, 此豈平日所望於執事者? 伏望從今屏棄此例, 使彼此俱得, 不勝幸甚.”; 권141, 「靜觀齋記」, “幼能自其先王考月沙相公, 道光王獻, 文洗國巖, 蔚然爲聖朝大雅之君子, 其先向書白洲公, 亦以文章儻望, 冠冕一時, 而幼能承藉先業, 則其非草澤閑隱之比者審矣. 雖欲長處於靜散之地, 其可得乎?”

39) 『정관재집』 속집 권9, 「遺事續一子喜朝」, “府君於同春則拜面已久, 尤庵則昧昧焉. 至是兩丈皆造朝, 而府君猶不即往拜尤庵, 蓋以有嫌故也. ……有人譏兄於春翁家曰, 李某對人, 以兩宋來仕, 有何所措之業, 終必取敗而歸. 吾旣以知一宋爲不幸, 豈有往見曾不相識之一宋也云云. ……同春日, 某言兩宋必大敗, 速敗則小不幸, 遲敗則大不幸也.”

40) 『정관재집』 권9, 「答宋尤齋一甲辰一別紙」, “俄聞金友益廉, 往一宰臣家大言, 李某右徐而攻尤齋, 尤齋於其兄禍患時有感恩之事, 而乃爲如此之論云.”

수 없었던 모순적 상황 때문이었다.

관료 출신 이단상이 송시열 등 산림과 뜻을 함께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우선 병자호란으로 인한 집안의 몰락, 그리고 효종대 복벌의 경험이라는 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단상은 현종 초반 정국에서 양송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누누이 역설했는데, 아래 편지는 왜 송시열에게 것처럼 출사를 강권했던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밤 저는 대감과 동춘 대감을 모시고 회정당에서 선왕(효종)을 뵈는 꿈을 꾸었습니다. 군신이 함께 대화하던 성대한 모습이 당시와 꼭 같았고 선왕의 목소리 또한 귀에 가득했는데, 깨어나 보니 이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적신 채 옷깃을 잡고 방황하다 목놓아 통곡했습니다. 대감 역시 고요한 밤 산속 서재에서 이런 꿈을 자주 꾸며 비통한 마음이 배나 되실 것입니다. 생각건대, 옛날 우리 선왕께서 하늘이 내리신 성인의 자질로 時運에 응하여 基業을 계승하시어, 자나 깨나 영웅호걸을 얻어 지극한 이치(至理)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대감께서도 가장 먼저 세상에 드문 知遇를 입어 비로소 산림에서 선뜻 몸을 일으키셨으니, …… 이로 말하자면, 오늘날 대감은 선왕의 顧命을 받은 원로대신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나라일에 힘쓰다 죽어야야 그만둘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 왕실과 나라의 안위가 오직 대감의 일진일퇴에 달려있는데, …… 대감께서 이런 시절에 한사코 물러나 다시는 손을 더럽혀 일하려 하지 않으시고, 위망의 급박함이 닥치더라도 홀로 몸을 깨끗이 간직하며 수수방관하여, 諸葛武侯가 先帝의 특별한 대우를 기억하며 당시 임금에게 보답하려던 의리를 끝내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⁴¹⁾

효종의 죽음으로 복벌의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예송으로 인해 산림

41) 『정관재집』 권9, 『答宋尤齋一癸卯』 “侍生於疇昔之夜，夢陪大監與同春大監，入侍先王於熙政堂中，一席都俞之盛，宛如平昔，丁寧玉音，了了在耳，而覺後茫茫，惟有涕淚被面，攬衣彷徨，幾乎失聲而哭。伏想大監於山齋靜夜，亦必頻有此夢，而倍切悲慟之懷也。侍生於此仍竊伏念，昔我先王以天縱聖資，撫運承基，寤寐豪英，思臻至理，大監首被曠世之遇，始自山林幡然而起。……以此言之，則大監之於今日，乃是先王顧命之元臣，而有鞠躬盡瘁死而後已之義者，……而宗國之安危，只係於大監一進一退之間，……則未知大監於此，亦將一例引退，更不欲犯手而做，雖有危亡之急，而猶且獨善其身，立視不救，終不思諸葛武侯追先帝之殊遇欲報之於陛下之義耶?”

들마저 조정을 떠나면 누가 효종의 至理 즉 복수설치의 의리를 계승할 수 있을지, 이것이 이단상의 가장 큰 걱정이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송시열에게 효종의 각별한 대우를 상기시키며, 홀로 물러나 潔身함은 出師表를 올린 諸葛亮과 같은 충직한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고 책망한 것이다.

한편 이단상의 산림적 지향은 학풍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가 예송 때 송시열의 기년설을 지지했던 까닭은 그것이 『경국대전』 등에 규정된 時王之制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례』에 근거한 고례였기 때문이었다. 국초 이래 조종의 관례를 중시하던 재정관료들의 경향과 자못 구별되는 이같은 태도는 1663년(현종 4) 영녕전 증수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⁴²⁾

종묘 영녕전의 증수 여부를 둘러싼 이때의 논란은 효종의 祔廟와 함께 거행된 인종·명종의 조천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영녕전은 태조의 4조인 穆祖·翼祖·度祖·桓祖를 모신 別廟(四祖廟)이자, 親盡된 선왕들의 위패를 옮겨 모시는 祧廟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영녕전의 구조는 4조를 모신 정전 4실과 祧主를 모신 6칸의 협실로 이루어졌는데, 1661년(현종 2) 인종과 명종이 함께 조천되면서 기존에 모셔진 공정왕(정종)·문종·덕종·예종과 더불어 6칸의 협실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음에 조천될 위패를 위한 공간을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영녕전의 배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다. 현종을 비롯한 조정의 대체적인 의견은 太廟(종묘 정전)과 마찬가지로 정전·협실의 구별 없이 정전 10실로 개수하고, 목조 등 4조와 공정왕 등 6명의 위패를 서쪽부터 차례로 봉안하자는 것이었다.

이때 古禮의 회복을 내세우며 조정 중론에 대한 반대를 주도한 사람이 이단상이었다. 그는 조선왕조의 종묘 제도가 천자례와 제후례, 古禮와 今制을 혼용해 왔음을 지적하고, 특히 제후국 조선에서 별도의 4조묘를 건립하고 그 협실에 조천한 신주를 모셔온 그간의 전통이 고례에 없는 경우이자 논란의 근원이라 지목했다.⁴³⁾

42) 이때 영녕전 증수 논의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이현진, 『조선 후기 종묘 전례 연구』(일지사, 2008), 86~97쪽 참조.

그리고 “옛날에는 오직 후손의 祧主를 선조의 협실에 올려 보관하는 법도가 있었을 뿐, 선조의 조주를 후손의 협실에 낮추어 보관하는 법은 없었다”는 주자의 말과 “제후는 祧廟를 두지 않으니, (조주를) 시조의 사당에 보관한다”는 張載의 설에 의거하여, 4조의 신주와 조주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정전에 모시는 것은 고례뿐 아니라 국초 이래 영녕전의 운영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녕전은 기본적으로 4조묘이지 祧廟가 아니며, 그간 祧主들을 영녕전에 모신 것은 후손의 조주를 선조의 협실에 보관한 임시방편이었다는 말이었다.⁴⁴⁾ 따라서 고례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할 바에는 우선 영녕전 설치의 근본 취지인 4조묘의 의의를 계승하여 지금의 구조를 그냥 놔두고 협실의 규모만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⁴⁵⁾

그러나 이는 이단상이 생각하는 종묘의 이상적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시조 및 4대조의 사당이 별도의 건물로 구획되어 昭穆으로 배치된 都宮의 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종묘 제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차선책으로 목조의 신위를 종묘 정전 제1실로 모시고 그 아래 태조 이하를 세실로 두며, 3조 및 공정왕 이하 조주를 모두 목조의 협실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여겼다.⁴⁶⁾ 그런데 이는 사실상 영녕전을 폐지하는 주장이었으므로,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단상은 현실적 대안으로 4조를 모신 영녕전 정전은 그대로 두

43) 『정관재집』 권13, 『答南雲路 - 九萬 - 癸卯 - 別紙』 “我朝之廟制, 天子諸侯古今之制, 互相錯雜, 而其中以四祖爲別廟之後, 以其下祧主藏於別廟之夾室者, 未有古制之可證, 故致有此紛紜之議.”

44) 이에 비해 남구만은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영녕전의 기본 취지가 4조묘가 아닌 祧廟라 주장했다. 『약천집』 권30, 『答李幼能 - 端相 - 癸卯』 “考見五禮儀永寧殿圖本, 正殿夾室皆如今制, 其下文曰, 永寧殿奉安遷主云, 而既無四祖別廟之說, 又無他主藏於夾室之語. 然則永寧殿初非四祖之別廟, 乃是遷主之所奉安也. 恭靖以下, 獨何可下藏於夾室哉?”

45) 『현종개수실록』 권8, 현종 4년 4월 9일(병오); 『정관재집』 권4, 『論永寧殿廟制疏 - 癸卯』 “當初之建, 雖非古禮, 而既因不得已爲此四祖之別廟, 則此是四祖之廟也, 非並享群祧主之廟也. 群祧主之藏於永寧之夾室者, 乃是古者子孫祧主上藏於始祖夾室之遺意, 則今不可改建十室之制, 並享群祧主於正殿之內者, 章章明矣. …… 愚臣淺陋之見, 則即今修改之道, 只當於永寧夾室窄狹處, 稍加恢拓, 以廣其制, 則雖不能便復古制, 而上不違祖宗朝稍存古制之遺意, 下亦可以不貽後世之譏議也.”; 『정관재집』 속집 권1, 『與洪相國 - 命夏 - 丙午』 “古禮之如何, 姑置不論, 國初既以四祖廟爲名而建立者, 著於諸書, 宣廟壬辰亂後丁未改建時, 亦不改正殿四間之規, 依前奉安祧主於夾室, 而今則必欲無端毀撤祖宗之廟, 將爲一體十餘間正殿之制耶? 此或非太祖當初尊奉四祖之意, 則未知如何?”

46) 『朱子大全』 권15, 『祧廟議狀』 “古者唯有子孫祧主上藏於祖考夾室之法, 而無祖考祧主下藏於子孫夾室.”; 『張子全書』 권4, 『周禮』 “諸侯無祧廟, 亦藏之於始祖之廟.”

고 협실을 늘려 조주를 보관하지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영녕전은 기본적으로 목조를 위한 시조묘이지 祧廟가 아니므로 4조와 조주를 병향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⁴⁷⁾ 그것이 고제를 제대로 복구하는 것은 못될지언정 조종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한편 송시열 역시 영녕전 증수 논의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이단상과 마찬가지로 주나라의 법도에 따라 목조를 시조로 삼아 종묘 정전 제1실에 모시고, 태조 이하를 世室로 삼을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없었는데, 이미 효종의 장례 과정에서 불충의 혐의 쓰고 낙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입장에서 송시열은 한·당부터 송·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묘제에 관한 전거들을 중황무진 인용하며 고려의 회복을 주장하던 이단상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봄에 예관이 내려와 종묘 제도에 관한 의견을 올리게 하였는데, …… 나중에 집사께서 훌륭한 글을 올려 절충한 바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 부분을 얻어 보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는데, 이번에 보내준 별지를 보니 목마른 자가 샘물을 얻은 것 같네. 어떻게 그 내용이 약속하지 않고도 이와 같이 서로 부합되는가? …… 나는 이미 예를 논하다가 여러 사람에게 죄를 얻은 나머지 발자취가 편안치 못하니, 혀를 깨물고 잘못을 반성할 뿐 감히 다시 이러한 의논에 끼어들지 못하네.⁴⁸⁾

당초 조정의 중론에 동조하던 송준길이 견해를 바꾼 것도 이단상의 주장

47) 이단상은 익조·도조·환조 등 3조의 위패 역시 목조의 협실에 보관하는 것이 고려에 부합하지만 그간의 4조를 영녕전 정전에 모신 것은 ‘예법에 없는 예(無於禮之禮)’라고 여겼다. 『정관제집』 권4, 『論永寧殿廟制疏』 “我朝永寧殿之建, 固非古禮, 而太廟之制, 既以太祖爲第一室, 則四祖祧主, 不宜下藏於太祖之夾室, 故不得已有此永寧殿之建也. …… 永寧正殿, 只當爲穆祖一位而已, 而既以三祖之主, 並享於正殿, 則恭靖以下之祧主, 豈必獨藏於夾室也. 今之議者, 必以此爲此十室並享之議, 而當初永寧之建, 爲奉四祖之主, 故只爲正殿四間之制, 此所謂無於禮之禮也.”

48) 『송자대전』 권64, 『答李幼能一癸卯』 “春間禮官下來, 俾獻其議. …… 爾後竊聽於途說, 則執事入大文字, 有所折衷, 甚恨不得一見副本也. 今者伏見別紙示論, 則復如渴者之得泉也, 何其所論不約而相符如是耶? …… 愚既以議禮, 獲罪於諸公, 其餘蹤跡, 種種難安, 只合齟舌省咎而已, 不敢更與於此等議耳.”

에 수공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때의 분분한 논의는 거듭된 재이로 말미암아 현종 8년에 가서야 동서 협실 각 1간 씩 증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무렵 조선 사상계의 핵심 논제가 禮의 문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주자가례』가 보급되면서 보편적 행위 준칙으로서 예의 중요성이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었고, 국가 의례의 전거였던 『국조오례의』가 俗制라 비판되며 『의례』를 중심으로 한 古禮의 우월성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김장생·김집 문하의 호서 산림이었다. 이들은 주로 『의례』와 『의례경전통해』를 전거로 내세우며 『국조오례의』의 개정을 시도했고, 이러한 태도는 그간 국가 의례의 담당자였던 관료들의 반발을 야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효종 초반 인조의 국상을 치를 때, 고례에 근거한 김집의 『古今喪禮異同議』에 대하여 國制를 내세운 이경석의 반발이었다. 그런데 이단상은 당시의 논쟁을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愼齋(김집)가 올린 절목(『古今喪禮異同儀』) 중 『오례의』의 누락을 보충하고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 각각 수십 조목인데, 그 논의와 주장이 모두 고례에 근거하여 더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 그런데 백헌 상국(이경석)의 주장은 俗制를 참고했으니, 일의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지만, 그 중 臣服의 제도는 고례에 크게 위배됩니다. 반드시 신재의 설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⁴⁹⁾

1663년 영녕전 개수 논쟁 역시 고례와 속제의 대립이라는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단상은 『국조오례의』에 근거하여 영녕전을 祧廟로 간주해 온 국초 이래의 전통과 조정 중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며,⁵⁰⁾ 고례에 근거하여 종묘 제도를 일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견해가 현실

49) 『정관재집』 권10, 「答洪尙書一命夏一庚子」, “愼齋所進節目中, 補其脫漏, 正其違誤者, 凡各數十條, 而其所講定, 皆據古禮, 無容別議. …… 而軒相之議, 參以俗制, 亦不無事勢之誠然者, 其中最是臣服之制, 大悖於古, 此乃必當依愼齋之說而行者也.”

50) 『정관재집』 권11, 「與金久之一丁未」, “蓋子孫祧主藏於始祖廟之夾室者, 乃是古禮, 詳在周禮及朱書等書, 詳細考見則可知也. …… 今之議者, 以五禮儀永寧殿下遷奉祧主之廟六字, 爲一大證, 必欲奉於正殿十間者, 殊可笑也.”

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임시방편을 제시했지만, 고례의 회복이라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산림들 못지않게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둘째 사위 김창협을 맞이할 때 사돈 김수항과 벌였던 갈등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혼례 때 親迎의 시행은 『주자가례』의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람들도 주자학의 절대성을 전면에 내세웠던 호서 산림들이었고, 이단상은 이미 장녀의 혼사 때 이정기와 합의하여 송준길 집안의 친영 의주를 참조하여 혼례를 행한 바 있었다.

혼례 때 친영은 본디 간략하여 쉽게 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행하려 하지 않음이 오랜 습속을 이루었습니다. 선정 제현 중에도 속례를 따르는 이들이 더러 있으니, 저는 이를 늘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르러 湖中에서 이 예를 비로소 행한다 하니, 오늘날 고례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⁵¹⁾

이단상은 당연히 둘째 딸과 김창협이 혼례 때에도 친영을 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그는 양주에 머물고 김수항은 서울에 있어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이단상은 『가례』에 의거하여 처가가 멀 경우 임시 장소(假館)를 마련하고 신랑이 그곳까지 나오는 방식으로 친영을 행할 것을 청했지만,⁵²⁾ 김수항은 친영을 생략하고 자신의 집안 관례에 따르자고 제의했다. 그러자 이단상은 김수항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51) 『정관재집』 권8, 『上宋同春』^⑨ “昏禮親迎也, 自省徑易行, 而我國士大夫不肯行, 久已成俗, 先正諸賢, 亦或有未免隨俗者, 端相尋常爲訝, 而近來湖中始行此禮, 庶幾古禮之復見於今日也.”

52) 『정관재집』 별집 권3, 『與金久之』^⑩ “昏禮親迎, 弟常以世俗昏禮爲無據, 曾見親迎節目, 大自省徑易行. …… 是以弟於長女婚時, 與一卿令公意, 與之相合, 取來春丈家親迎儀註, 稍加降殺裁損而行之矣. 今於此兒之婚, 弟若在京行之, 則亦可與兄相議, 以親迎行之, 而今者弟既無遷入之勢, 兄家之不得出, 尤無可論如此, 而必欲行親迎, 則事誠膠固, 可笑, 但婚姻是人之大倫也, 長女則行親迎, 次女則行俗禮, 事極無據, 兩家相遠, 則宋夫子有設假館就彼迎行之語, 此處相望地有好家, 兄於婚日只率新郎而來, 則自弟家一一整備, 仍行親迎之禮, 俾令弟前後兩女之婚, 皆行一禮, 則於禮於情, 於兄家於弟家, 恰好無欠.”

형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凡人들이나 하는 말이니, 형께서 그런 말을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친영의 예를 두고 주공·공자·정자·주자 등 여러 선생이 깊이 헤아려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만이지만, 그것이 주공·공자·정자·주자의 법도이자 후세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 여부에 거기에 달려있을 뿐이지 않겠습니까?⁵³⁾

안동 김씨 집안의 전통을 속례라 비판했던 이러한 태도는 古禮 및 주자학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단상이 『주역』과 상수학의 세계에 침잠했던 것은 대체로 만년의 일로, 낙향 이전인 현종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대학』과 『심경』을 위주로 한 전통적 주자학의 학문 방법에 충실했다.

특히 1663년 완성한 『大學集覽』은 程·朱 및 董槐·黃震·蔡清·王柏·宋濂·方孝孺·都穆·羅欽順·王守仁 등 송명대 학자들과 더불어 권근·이황·노수신·이이·이정구·장현광 등 조선 학자들의 格物致知에 관한 논의를 모은 책이었다. 독창적 학설을 담은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식 간행되지는 않았지만,⁵⁴⁾ 이는 6대조 이석형의 『대학연의집략』과 조부 이정구의 『大學講語』로부터 내려오는 『대학』 연구의 가학적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식과 더불어, 주자가 개정한 『대학장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대의 학설을 집대성하고자 하는 포부 아래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또한 이단상은 송대 陳德秀의 『대학연의』와 『심경』을 특히 중시했다. 『대학』의 이론을 역사 속에서 풀이한 『대학연의』야말로 제왕의 정치에 근본적

53) 『정관재집』 권11, 『答金久之-乙巳-別紙』 “弟於此實不覺惘然失圖，此乃世俗凡人之言，初不料兄之亦爲此也。若以親迎之禮，謂非周公孔子程朱諸先生之所勘定則已，若以爲是周孔程朱之法，而後世之所必可行者，則其行與不行，顧不在此而已耶？”

54) 『정관재집』 권14, 『關西問答錄跋』 “不佞又嘗妄以晦齋先生大學章句補遺一篇，仍加哀集，遂以古今大學改正諸本及格致諸說，倣蘇齋盧相國之所已編錄者而分爲兩篇，以禮記元本及明道伊川考亭三先生所改正者，與董丞相黃慈溪蔡虛齋諸先正之所移易經傳者爲上篇，而以晦齋先生補遺終焉，以王魯齋宋潛溪方正學都南濂羅整菴王陽明，以至我朝權陽村退溪先生盧蘇齋栗谷先生與不佞先祖考月沙先生，諸先正之論格致傳之說爲下篇，以張旅軒之晦齋先生補遺圖終焉。名之曰大學集覽，以爲私自誦玩之資，懼其近於編著，雖不敢出以示人。”

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학』의 본지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책이라 극찬한 것이다.⁵⁵⁾ 또한 성리학적 심성론의 요체를 담고 있으며 주자를 정통으로 송대 도학의 이론 체계를 재정립한 『심경』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현종에게 학문에 힘을 쓸 것을 당부하는 가운데 이 책을 추천했다.

성현이 남긴 경전의 뜻이 어느 것인들 마음을 다스리는 藥石이 아니겠습니까만, 그 말씀이 간략하되 뜻은 정밀하고 공부는 간단하되 효과는 심대하여, 체용이 모두 갖추어지고 시종이 겸비된 것으로는 『심경』만한 책이 없습니다. …… 참으로 심학의 지남거이자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라 할 만 합니다.⁵⁶⁾

아울러 『심경』에 통달하면 4서의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사위 김창협과 이행에게 『심경』을 열심히 가르쳤으니,⁵⁷⁾ 동강으로 낙향하기 이전 이단상의 주된 관심은 『대학』과 『심경』을 중심으로 한 주자학의 전통적 자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맺음말

17세기 초반 서울 학인들의 전형적인 입신 경로와 마찬가지로, 이단상 역시 관료 가문에서 태어나 문장과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 그러나 병자호란으로 인해 집안이 몰락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효종대 조정에 머무는 동안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송시열 등 산림들과 뜻을 함께 하였다. 또한 현종 초반 기해예송과 영녕전 증수 논쟁의 과정에서 古禮와 주자의 학설에

55) 『정관제집』 권5, 『應旨論時事疏』, “大槩西山本書, 推衍大學綱領條目而爲之, 眞帝王爲治之律令格例也. 雖其援引之富, 論說之詳, 然無一言而不源於孔子之經, 無一句而不根乎曾子之傳.”

56) 『정관제집』 권5, 『應旨論時事疏』, “聖經賢傳之旨, 孰非治心之藥石, 而然其語約而義精, 功簡而效博, 體用俱該, 始終兼備者, 莫若心經一部. …… 其於心學, 眞可謂指南之車燭幽之鑑也.”

57) 『정관제집』 별집 권2, 『與李一卿』⑥ “若讀心經, 則四書意義, 自可盡解, 果能精讀此書兩卷, 不但文理必暢達, 其於身心, 亦必有益.”

근거하여 『국조오례의』 등 전통적 예법을 俗禮라 비판하며, 송시열·송준길 등 산림에게 학문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면모는 서울 지역 관료의 대표자였던 이정구의 손자이자 이명환의 아들 그리고 낙론의 종장 김창협(의 장인)이자 스승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간의 연구들에서 기대했던, 호서 산림들과 학문적으로 차별성을 지녔던 재경관료의 대표 학자로서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더구나 그는 1664년 송시열과 서필원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公義·私義 논쟁에 참여한 뒤 서울을 떠나 양주 동강으로 낙향한 뒤 철저히 서인-산당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이는 관료에서 산림으로의 전향이라 표현할 수 있을 만한데, 훗날 김창협은 이단상의 이러한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대저 道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文詞의 폐단이 利祿의 유혹보다 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고명한 문장가들은 모두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며 성인의 학문에 종사하기를 꺼려하고 간혹 뜻을 두더라도 자신의 장점에 얽매어 도에 깊이 나아가지 못한다. 선생은 문장가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며 그 문예가 출중하였고, 특히 詩에 뛰어나서 탁월한 성조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만년에 시 짓기를 끊어버리고 말하기를, ‘나는 쓸데없는 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한 文은 붓가는 대로 올곧게 써서 수식을 일삼거나 옛것을 본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조금 다듬고 고치라고 충고하면 ‘나는 한창 학문에 매진하고 있으니, 그런 일을 할 겨를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사욕을 극복하고 변화시켜 한뜻으로 도에 종사한 것이니, 그 용기가 작록을 사양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⁵⁸⁾

이단상이 시문과 도학에 모두 능통하였음을 강조한 위의 글은 그의 삶이 문장을 토대로 관직에 진출하던 17세기 전반 전형적인 서울 지역 지식인들

58) 『정관재집』 별집 권4, 『狀誌後序－門人金昌協』 “夫道之難入也，文詞之蔽，蓋甚於利祿之誘矣。世之高明文學之士類，皆自喜其能，不肯從事於聖人之學，或既有志焉，而亦困於所長，終不能深造乎道也。先生既生長詞翰家，其文藝絕人，尤長於爲詩，聲調奕奕動人，而晚年顧絕不爲曰，吾不喜閑言語也。其爲文，亦肆筆直書，略不藻飾規古。或告以稍加修治則曰，吾方致力於學，不暇爲此也。是其克治變化，一意事道，其勇又過於辭爵祿矣。”

의 행로와 달리 산림을 지향하게 된 새로운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후 청 중심의 질서가 안정되어 가던 현종대 중반 이후, 공의·사의 논쟁과 현종의 罰金事, 그리고 漢人 林寅觀 일행의 표류 사건 등을 계기로 드러난 이단상의 復讎論과 華夷論, 그리고 특히 말년에 두드러진 상수학풍에 대해서는 지면을 달리하여 (2)편에서 논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孝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承政院日記』
- 『靜觀齋集』(李端相), 『宋子大全』(宋時烈), 『同春堂集』(宋浚吉), 『沙溪遺稿』(金長生), 『文谷集』(金壽恒), 『東里集』(李殷相), 『孤山遺稿』(尹善道), 『南溪集』(朴世采), 『芝村集』(李喜朝), 『白湖集』(尹鐸), 『藥泉集』(南九萬)
- 유봉학, 『연암일파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_____,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 이경구, 『조선후기 안동 김문 연구』, 일지사, 2007.
- 조성산, 『조선후기 낙문계 학풍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7.
- 이현진, 『조선후기 증모 전례 연구』, 일지사, 2008.
- 오세현, 『문장, 조선을 경륜하다』, 나늬, 2018.
-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역, 『국역 정관재집』, 보고서, 미간행.
- 정만조, 『17세기 중반 漢黨의 정치활동과 國政運營論』, 『한국문화』 23,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9.
- 하상복, 『자산서원, 휘철과 복설의 상징정치』, 『인문과학연구』 21, 대구기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우경섭, 『인천 鶴山書院과 李端相·李喜朝父子』, 『한국학연구』 3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 _____, 『17세기 沃川 三溪書院과 斯文是非』, 『역사와 담론』 82, 호서사학회, 2017.

靜觀齋李端相的生平与思想 (1)

— 以丙子胡乱的经验和礼论为中心 —

禹景燮*

迄今为止, 静观斋李端相被评价为, 在以心性论和礼论为主的十七世纪中叶朝鲜王朝思想界, 引领以象数学为代表的新学风的学者. 并且, 走出宋时烈等山林主导的朱子学一边倒的学风, 继承了汉城地区象数学的传统, 引领了西人内部的开放性和进步性学风, 他被认为是该学风的源流之一, 后来传承为洛论和北学. 可是, 详考李端相的生涯, 就能看出其与现有通常观点不符的面貌. 李端相也像其他十七世纪初典型的汉城文人, 出生于宦宦之家并通过文章和科举走上了仕途. 不过, 由于丙子胡乱他个人经历了家道中落, 孝宗时期在朝廷奉职期间, 虽无多少亲缘, 但与宋时烈等山林走在一起. 他专心致力于以《仪礼》和《家礼》为中心的礼学研究, 而且以拥护朱子改定的大学章句为目的, 编纂了整理历朝历代学说的《大学集览》. 在显宗年间, 他反对扩建永宁殿, 主张从根本上改革宗庙制度, 并且在家族的婚事上固守亲迎等事实, 则反映其学问和思想超出十七世纪中叶朱子学范畴的部分并不多.

關鍵詞: 李端相, 丙子胡乱, 宋時烈, 永寧殿, 象數學, 大學集覽.

논문투고일: 2020년 7월 1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8월 17일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

